

산당교회와 생명공동체 이야기

한 종 현(목사, 경북 고령 산당교회)

원래 편집자로부터 주어진 제목은 ‘산당교회와 생명공동체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는 나 자신이나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지역 전체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야기로 개교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두고 싶다. 그러나 부득이 나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나는 1987년 가을에 경북 고령군 쌍림면에 위치한 산당교회로 목회지를 옮겼는데, 이곳은 딸기 주 생산지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생산량이 많으면 좋은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이를 위해서는 일부사람들은 농약 처리는 물론이고 호르몬제까지 사용하여 딸기를 크게 만들곤 하였다. 그리고 다른 곳에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도 마당의 풀을 죽이기 위해서 제초제를 사용하고 있었다. 이는 첫째로 무지(無知)의 결과이고, 둘째는 어려운 농촌 경제 생활을 탈피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10:10)를 믿는 교인들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여 교회에서 제초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교인들이 재배하는 딸기에도 가능한 한 농약을 적게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별로 효과는 없었다. 그것은 농사가 망치면 일년 동안 생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까지 손가락질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고민 끝에 교회에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몇 가지 사업을 시작하였다.

첫째는 1989년부터 참기름을 짜서 유통하기로 했다. “참기름과 꿀은 외할머니가 갖다 주어도 가짜가 있다”는 말이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 농민들이 재배한 국산 참깨를 구입하여 직접 짜면 가짜일 수가 없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참기름을 짜서 대구에 유통하였는데 이때는 ‘대구크리스찬아카데미’에 납품하였다. 이 일은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사정으로 1년 정도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 이익금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의 ‘산당장학회’가 발족되어 젊은 일꾼들을 키우는데 이바지하게 되었다.

둘째는 유정란 생산이었는데 보통 사육되는 닭은 케이지에 갇혀 있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앓게 되므로, 약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계란과 닭이 엄청나게 약으로 찌들게 되고, 닭똥 냄새도 심각한 문제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닭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대접받으면서 인간에게 유익을 주는 방식으로 사육되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교인들은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았다. 그러던 중 정감조 집사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여 처음에 닭을 300마리 사육하였는데 내가 지도한 대로 한 결과 닭은 건강하고, 닭똥 냄새도 전혀 없고, 좋은 계란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감조 집사는 집안 사정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지속하지를 못하였다. 이 일은 언젠가 다시 해야 할 일이다.

셋째는, 1993년 5월에 우리교회 뿐만 아니라 이웃교회의 뜻을 같이 하는 교인들과 생산자공동체를 만들기로 하였다. 물론 유기농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회원을 모집한 결과 같은

시찰 5개 교회에서 15명이 참여하였다. 그 중에는 정농회(正農會)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곽해석 장로)도 있었고, 지역 농민회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신병후 집사)도 있었다. 그리고 이름을 ‘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의 ‘땅지기 생산자 공동체’란 이름을 붙이고, 회원교육을 겸하여 창립 총회를 하고, 각자 유기농업으로 생산할 수 있는 품목들을 이야기하고, 해마다 품목 수를 늘려가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모체가 되어 지역에서 여러 가지 생명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넷째로는 ‘땅지기 생산자 공동체’에서 생산한 물품들을 유통하는 일이었는데 이를 위해서 대도시인 인근 대구(고령에서 대구까지는 약 40킬로미터)에 매장을 차리는 것이 좋겠다고 의논이 되어 1994년 3월에 대구에 매장을 개설하고(매장은 이철상 장로의 병원 지하실을 빌려서 사용) 이름을 ‘땅지기 생활협동조합’이라고 바꾸었다. 이때 참여한 사람은 주로 농촌교회 목회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정규삼 목사, 방상국 전도사, 흥담연 목사, 김덕용 목사, 김태연 전도사, 이철상 장로, 곽해석 장로, 이경옥 전도사, 권병수 전도사, 서문부 목사, 이창식 전도사, 박태립 장로, 신병후 집사, 정강조 집사 등이 있었다.

이때는 생산자들로부터 물품을 받아서 대신 유통해주는 단계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거의 모든 일을 목회자들이 자원봉사로 수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인건비와 여러 가지 경비가 있어야겠기에 물품도 늘이고 유통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래서 주력 물품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어 고령에서 생산하는 유기농 딸기잼과 우리밀로 된 제품들을 선택하게 되었다.

다섯째는 딸기잼 생산을 위하여 정식으로 허가를 내는 일이었는데 이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다. 우선은 곽해석 장로가 돈을 들여 시설을 하기로 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갖추어 딸기잼 공장을 완공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가공산업



딸기잼 공장 앞에서 (좌측이 필자이고 우측이 박수열 장로)

의 모든 법이 생산을 직접하는 농민들보다는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예비하셔서 드디어 딸기잼 공장을 건설하고 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 잼을 ‘곽해석 딸기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후에 이 잼은 무농약 잼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잼이 되어 개인적으로는 곽해석 장로 집의 재정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고, 우리 생협的主력상품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후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직접 딸기 잼을 생산하는 일이 많아졌다.

여섯째는 우리밀 제품을 생산하는 일이었는데 당시 고령군 다산면에서 계약재배로 밀을 많이 재배하고 있었는데 계약한 곳에서 밀을 가져가지 않자 우리에게 구매의사를 물어왔다. 나는 좋은 기회라고 여겨서 그것을 수매하여 제분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수매자금이 없어서 박태립 장로와 내가 농협에 빚을 내어서 수매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더 큰 일은 제분할 곳이 없었다. 우리밀이 수입밀과 가격경쟁이 되지 않자 농민들이 우리 밀을 심지 않게 되고 그로 인하여 제분소도 다 없어지게 되었



곽해석 장로님의 딸기밭에서

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인근 성주에 있는 화죽정 미소에서 제분기를 새로 설치하여, 제분할 수 있다고 하여 그곳에 부탁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무더운 여름철에 밀을 수매하여 차에 싣고 제분소로 운반하였는데,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수매하여 차로 운반하는 일은 생협에 참여한 모든 목회자가 직접 밀을 메고 차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하였는데, 하루에 200포대 이상을 할 때도 있어 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때로는 운송 도중에 소나기가 오기도 하고, 운송 도중에 밀을 잃어버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가 묵묵히 참으면서 열심히 하였다. 이것은 생협을 위하고 근본적으로는 농민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려움은 그 뿐만 아니었다. 농약처리를 하지 않고 여름철 무더울 때 밀을 수매했기 때문에 밀을 먹는 바구미가 새까맣게 포대에 달라붙어 있어서 밀 손실이 상당히 많았다. 그러나 어쨌든 이로 인해 우리밀을 많이 생산하게 되었고 이를 이용하여 밀가루, 국수, 과자, 빵들을 생산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 예장생활협동조합(상임이사:김재일목사)이 이러한 우리밀

제품을 많이 이용해 주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리하여 땅지기생활협동조합은 지금까지 적자 없이 운영하게 되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와 지역의 목회자들의 수고와 도와주신 분들의 덕분이라 하겠다.

한편 우리 땅지기생협을 기초로 하여 대구지역에 생협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는데 곽은득 목사가 주축이 된 ‘푸른초장’, 동로교회의 ‘동로생협’, 대봉교회의 매장들이 생기게 되었고, 교회 내에서 생협과 비슷한 일을 하는 곳도 여러 곳 생기게 되어 대구지역에 생활협동조합이 조금은 활성화되는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는 교회강단에서 자주 생명의 중요성과 교회내에서와 농장에서의 신앙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특히 농어촌주일과 환경주일에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교회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하면서 농장에 가서는 농약을 듬뿍 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농장에서의 농산물 생산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전했다. 즉 유기농업이나 생명농업은 물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하기보다는 신앙적인 면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교인들의 의식도 많이 달라지고, 또한 소비자들의 요구도 많이 달라져서 오늘에 와서는 교인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딸기를 재배하게 되었고 지역에서 두 가정이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아직까지 유기농업의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해 아쉬움이 많이 있다.

여덟째로는 노회내에 생명운동을 확산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노회 농촌부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목회자와 제직수련회는 반드시 유기농업에 관한 강좌를 하게 하였고, 맥추절 행사 때는 땅지기생활협동조합과 더불어 밀과 보리 수확의 기쁨을 간접적으로나 맛보는 맥추절 행사를 하였다.



즉, 맥주절에 관한 설교와 함께 우리밀과 우리 보리쌀을 먹는 운동을 펼쳐 많은 교회에서 밀가루와 보리쌀 그리고 국수를 소비하게 되었다. 또 이와 함께 우리밀로 된 성찬식운동도 김성순 장로가 생산하는 포도주와 함께 하고 있다. 곧 우리밀로 된 전병을 각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한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을 벌여서 여러 가지 스티커도 만들고, 비디오 테이프 보급, 자료집(수입농산물의 오염실태)발간, 그리고 도시교회를 돌면서 농민들의 이야기와 우리농산물 먹기 운동에 관한 설교 겸 강연도 많이 하였다. 이일로 소비자들의 호응이 많이 좋아지고 도시교회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여겨진다. 이일이 확산되어서 이웃 대구동노회에서도 흥담연 목사가 사명감으로 시행하고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아홉째는 생명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노회내에 있는 여전도회 연합회를 잘 활용하는 일이었다. 다행히 회장이었던 김남교 장로와 안미자 권사 등의 많은 협조로 여전도회연합회를 중심으로 생협의 많은 회원들을 모집하게 되어 생협법에 의해 2001년 2월에 생협을 재창립하게 되었다. 창립과 함께 회원들의 생산지

현장을 견학하는 공부도 하게 되고, 이분들이 이사로 참여하여 생협이 튼튼히 서 갈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는 대구내의 대구동노회와 경북노회에도 확산시키는 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열번째는 직영농장을 건설하는 일이었는데 1999년에 성주군 후평면에 논 8,000평과 임야 5,000평을 구입하였다. 이 일은 흥담연 목사, 정규삼 목사, 방상국 전도사, 김성택 전도사, 박태경집사 그리고 나 이렇게 여섯명이 구입하여 김성택 전도사가 농사를 짓기로 하였다. 이곳은 물이 많고 햇볕도 많이 들어서 논농사에 적합하고, 대도시 인근(대구에서 자동차로 한시간 거리) 이면서도 한적한 곳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한다. 이 직영농장도 ‘땅지기 농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서 실험적이고 유기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 생명운동을 공부하는 현장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외에도 영남신학교 내에 ‘농촌목회연구소’를 개설하여 목회적인 일과 생명운동에 관한 일들을 이론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강의를 통하여 후배들을 양성하고 참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 또한 경북지역 8개 노회 농촌부 협의회를 만들어서 지역이 함께 생명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지금까지 산당교회에 부임하여 지역의 여러분과 함께 한 일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고생을 하면서 애를 쓴 분들이 있었기에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을 수 있었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린다. 또한 한경호 목사님의 부탁이 있었기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정리할 수 있어서 감사드린다. 이 어려운 시대를 같이 살아가며, 고민하는 농촌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중현 목사의 주소는 경북 고령군 쌍림면 산당동 300번지이고 전화는 054-955-0056 이다.